

# AI·반도체·양자기술이 승부처... 세종대 기술료 수입 1위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 활동조사 세종대 173.6억 경희대 97억 건수보다 규모·기술가치 영향 커

대학 기술사업화 실적에서 세종대와 경희대가 기술료 수입 1·2위를 차지하며 서울대와 KAIST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 모두 동영상 코덱 표준특허 등 고부가가치 기술이전 성과가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대학 기술사업화 경쟁도 단순 이전 건수에서 벗어나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확보와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공개한 '2025 대학 산학협력 활동조사'에 따르면, 대학 기술사업화 실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이전 건수는 충북대·전남대·경북대 등 국립대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기술료 수입은 세종대가 173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가 97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료 수입 상위 대학은 세종대와 경

〈대학교 기술이전 표〉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수입			건당 기술료		
순위	기술이전 대학	건수	순위	기술료 대학	기술료	순위	건당 기술료 대학	건당 기술료
1	충북대	237	1	세종대	173억6800만원	1	세종대	2억7570만원
2	전남대	203	2	경희대	97억4000만원	2	KAIST	1억6020만원
3	경북대	158	3	KAIST	81억6800만원	3	경희대	1억2770만원
4	원광대	157	4	서울대	64억6200만원	4	서울대	9360만원
5	충남대	146	5	성균관대	43억1000만원	5	성균관대	8600만원
6	국립부경대	140	6	한양대	41억9600만원	6	한국항공대	8360만원
7	강원대	135	7	연세대	40억8600만원	7	한국외대	8000만원
8	경상국립대	109	8	고려대	36억5500만원	8	한양대	6460만원
9	부산대	102	9	충북대	31억2000만원	9	연세대	5310만원
10	국립금오공대	99	10	경북대	30억9000만원	10	광운대	5070만원

희대에 이어 KAIST(81억6800만원), 서울대(64억6200만원), 성균관대(43억1000만원), 한양대(41억9600만원), 연세대(40억8600만원), 고려대(36억55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기술이전 건수는 충북대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원광대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는 원광대가 유일했다.

기술료 수입에서는 기술이전 건수보다 계약별 기술료 규모가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술이전 계약 1건당 기술료를 비

교하면 세종대는 평균 27억5700만원으로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KAIST(16억2000만원), 경희대(12억7700만원), 서울대(9억3600만원)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건당 기술료 역시 세종대가 KAIST보다 약 1.7배, 서울대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세종대는 지난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계약 3건을 성사시켰고, 동영상 코덱 분야 표준특허를 활용해 지식재산 수익원을 다변화한 것이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술료 수입 2위를 기록한 경희대도 동영상 코덱 표

준특허 로열티와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성과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준특허는 국제 기술표준에 포함된 핵심 기술로, 관련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만큼 일반 특허보다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관계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 등 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구축해 온 결과가 지난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사업화 실적은 단순 기술료 규모뿐 아니라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등 연구생산성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는 연구비 규모가 6000억원 이상인 반면 세종대는 1000억원 수준에서 173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둔 만큼, 보유 기술의 사업화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학 기술사업화의 무게중심이 특허 보유 규모나 기술이전 건수 경쟁에서 벗어나 고수익 기술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전체 대학 기술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관계자는 "최근 대학 기술사업화는 단순히 특허를 많이 확보하거나 기술이전을 늘리는 것보다 보유 기술을 실제 사업화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첨단기술과 양자·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역량이 대학 기술사업화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체대 희망 고교생, 실기고사 미리 체험한다

내일 '서울미래체육인재하마당' 개최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진학지원 강화

서울 고등학교생 1600여 명이 체육계열 대학 입시 실기고사를 미리 체험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체육계열 진학 분야에서 공교육 중심의 실기 모의평가와 진학 상담을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176개교 1607명이 참여하는 '2026학년도 서울 미래체육인재하마당'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 대학생 멘토링, 체력 운동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실제 대학 실기고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록과 역량을 점검하고, 체육계열 진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용산청사.

실기고사 모의평가는 체육계열 대학 전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자리멀리뛰기, 메디신볼던지기, 배근력, 10m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제자리멀리뛰기와 배근력, 10m 왕복달리기는 디지털 측정 기구를 활용해 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기 기록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미래체육인재하마당은 2012년 체

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에서 출발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통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확대됐다.

참가 대상도 점차 넓어졌다. 2022년부터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가 아닌 일반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24년부터는 특성화고와 자사고를 포함한 서울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451명이 참여하며 대규모 체육계열 진학 지원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사에서 축적되는 실기 모의평가 기록을 진학지도용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2024학년도 기록부터는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 고려대, 맞춤형 AI 요약 프레임워크 개발

임희석 컴퓨터학과 교수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연구진이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복잡한 문서를 쉽게 풀어주는 인공지능(AI) 요약 기술을 개발했다.

고려대는 임희석 컴퓨터학과 교수가 이끄는 NLP&AI 연구실과 HIAI 연구원이 AI 요약 프레임워크 'NRLB(No Reader Left Behind: Multi-Agent Summaries Everyone Can Understand)'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NRLB는 문서를 단순히 짧게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이해 수준을 반영해 정보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공공 문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팀은 미국의 '쉬운 공공문서 작성



(왼쪽부터) 임희석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교신저자), 컴퓨터학과 정지민 석박통합과정(제1저자) /고려대

법(Plain Writing Act)'에서 강조하는 명확하고 쉬운 공공 문서 작성 원칙을 AI 요약 기술에 접목했다.

NRLB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독자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와 부족한 배경 설명,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식별하고, 개인 맞춤형 배경 설명과 용어 정의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 도내 최고 평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가 경기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파주시는 통일동산관광특구가 '2025년도 경기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총점 93점을 받아 경기도 평가 대상 관광특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파주 통일동산, 동두천, 평택 등 3개 관광특구로 경

기도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따라 매년 도내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편의성, 잠재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현장 평가가 도입됐다. 현장 평가에서는 편의성 25점을 점검했고, 기존 대면 평가방식으로 잠재성 30점, 효율성 20점, 지속가능성 25점을 심사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편의성 23.25점,

잠재성 29.25점, 효율성 19.00점, 지속가능성 21.50점을 받았다. 총점은 93점이다.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 체계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외국인 방문객 수에서도 평가 대상 관광특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도 제시됐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만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방문객 국적과 성별 등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오늘의 날씨

6월 10일 (수)

음력 : 4월 25일

수도권 날씨

17~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이출 지수

연천 13/25

동두천 14/26

가평 13/26

파주 13/25

서울 17/26

양평 15/27

인천 17/24

수원 16/26

평택 15/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시진핑, 방북 이틀째 중조우의탑 참배... '혈맹' 우의 부각  
▲나토, 라트비아 침범 드론 격추... 우크라인 불뚝 우려 증폭 /사진 뉴스시스

▲'푸틴·네타냐후 영장 청구' ICC 검사장, 성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트럼프·네타냐후, 이란·레바논 전선서 균열... 관계 이상기류

▲英 "빅테크, 아동 유해 콘텐츠 제한하라"...美 "자국 기업 규제"  
▲日 도쿄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단독주택으로 발길 돌린다